

# 정원의

# 언어

# Garden

# Languages

## 2025

## 서울

## 학원의

## 9.26.Fri.-

## 10.5.Sun.

안마당터렘 · 북촌문화센터

문구점의 테라리움 · 배령가옥

천변만화 · 북촌마을서재

마초의 사준기 · 북촌한옥청

이대길 스튜디오 · 홍천의가옥

유로니스 스튜디오 · 상촌재

서원학



월하랑

한국문화재단이사

현대 건축과 달리 외부공간과의 소통으로 완성되고, 마당 및 주변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한옥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2025 서울한옥위크의 전시 주제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집과 마당, 그리고 주변 환경을 하나의 공간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한국 건축 문화입니다. 건축물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정원이 단순히 꽃과 나무로 장식된 예쁜 곳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건축이라는 확장된 자아가 자연과 관계를 맺는 방식의 표현임을 전시를 통해 보여줍니다.

《정원의 언어들: Garden Languages》는 북촌과 서촌 일대의 한옥에서 땅과 소통한 정원가 내면의 탐구를 다양한 소재로 완성합니다. 식재뿐 아니라 흙, 물, 돌, 빛 등의 다양한 정원 재료를 통해 작가 내면의 언어와 땅이 가진 장소성을 구현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원의 역할과 역사 정원에서의 감각, 전통 구조물의 재해석, 유리병 속 작은 세상과 동화 같은 이야기 등을 《여지 餘地, 여분의 마음》, 《소쇄산방 瀟灑山房》, 《균형과 절제》, 《관조 觀照》, 《미기후의 자리》, 《공존 共存》이라는 주제로 선보입니다. 한옥마다 갖고 있는 공간적 특수성에 따라 실내외를 아우르는 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The theme of the 2025 Seoul Hanok Week exhibition is “The Garden.” In a departure from modern architecture, Hanok finds its completion not in separation, but in a living dialogue with its exterior spaces such as Madang (courtyard) and surroundings. This embodies Korean architectural philosophy that unifies the house, garden, and landscape into a single, cohesive concept. Through this exhibition, a garden is more than a decorated area with flowers and trees, but a deep reflection of how architecture, as an extension of the self, connects with nature.

*Garden Languages* is a collection of inner explorations by gardeners who have communicated with the land in Hanok houses across the Bukchon and Seochon areas. Utilizing a rich palette of garden elements—soil, water, stone, and light—in addition to plants, the exhibition gives form to the artists’ language and the land’s sense of place. Framed by the themes of *Yeoji, A little Room to Care, So Swae San Bang, Balance and Restraint, Gwan-jo*(Contemplation), *Where Climate Rests*, and *Coexistence*, it presents various topics from the modern role of gardens and sensory experiences in historic ones to the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structures, whimsical worlds in glass bottles, and even fairytale narratives. Welcome to a unique exhibition that seamlessly blends indoor and outdoor spaces, each shaped by the unique features of its Hanok.

2025 서울한옥위크 전시총괄을 맡은 월하랑은 한국정원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섭니다. ‘우리 정원의 가치를 전하다.’는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정원 교육, 정원 여행 상품 개발, 정원 전시 기획,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정원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www.wolharang.com](http://www.wolharang.com)

Wolharang, the director of the 2025 Seoul Hanok Week exhibition, is dedicated to elevating a deeper appreciation for Korean garden. Driven by its mission of “sharing the value of Korean gardens,” it spreads awareness of Korean garden culture through diverse initiatives, including garden education, creating tour packages, planning exhibitions, and giving lectures.  
[www.wolharang.com](http://www.wolharang.com)

1 홍건익 가옥 4P  
《여지 餘地, 여분의 마음》  
House of Hong Geon-ik  
*Yeoji, A Little Room to Care*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1길 14-4  
14-4, Pirundae-ro 1-gil, Jongno-gu, Seoul

2 상촌재 6P  
《소쇄산방 瀟灑山房》  
Sangchonjae Hanok House  
*So Swae San Bang*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2-11  
12-11, Jahamun-ro 17-gil, Jongno-gu, Seoul

3 북촌문화센터 8P  
《균형과 절제》  
Bukchon Cultural Center  
*Balance and Restraint*  
서울 종로구 계동길 37  
37, Gyedong-gil, Jongno-gu, Seoul

4 북촌마을서재 10P  
《미기후의 자리》  
Bukchon Community Library  
*Where Climate Rests*  
서울 종로구 계동2길 11-9  
11-9, Gyedong 2-gil, Jongno-gu, Seoul

5 배림가옥 12P  
《관조 觀照》  
Baeryeom's House  
*Gwan-jo(contemplation)*  
서울 종로구 계동길 89  
89, Gyedong-gil, Jongno-gu, Seoul

6 북촌한옥청 14P  
《공존 共存》  
Bukchon Hanok Hall  
*Coexistence*  
서울 종로구 북촌로12길 29-1  
29-1, Bukchon-ro 12-gil, Jongno-gu, Seoul

7 북촌라운지 16P  
《정원가는 작업 중》  
Bukchon Lounge  
*Gardeners at Work*  
서울 종로구 계동길 103-7  
103-7, Gyedong-gil, Jongno-gu, Seoul





## 여지 餘地, 여분의 마음 이대길 스튜디오

여지가 없다는 건 한 쪽으로 한없이 배척하여 계획 이상의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하지만 자연은 여지가 많다. 혹은 여지가 자연을 탄생시켰고 여전히 흐르게 하는 걸지도 모를 정도이다. 어떤 생물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던 일말의 여지가 다른 생물들을 태어나게 하고, 진화를 이끌어낸다. 비가 오고 남아있는 물로 인해 한 씨앗은 싹이 트고, 뿌리를 뻗는다. 이름 모를 철새는 그 물로 목을 축이고 깃을 씻어내어 다시금 날아갈 기력을 회복한다.

‘여지’와 ‘여유’는 모두 같은 ‘남을 여’자를 쓴다. 나 이외의 다른 생명을 포용하려는 여분의 마음으로부터 다른 생명이 살아갈 가능성이 생겨나며, 나의 일상과 삶, 도시의 생태계에도 여유가 생긴다. 표백된 한옥의 틈 없는 환경에 알거나나 흙을 걷어내고 수반의 물을 담아내어 그들을 환대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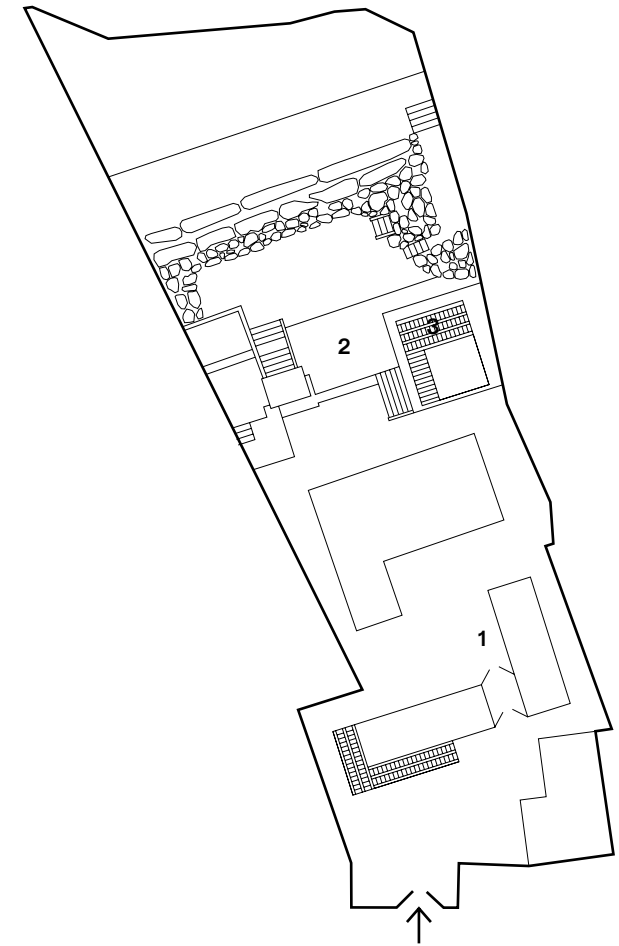
이대길은 생태를 기반으로 한 예술적 표현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돌보는 정원사이다. 2019년부터 이대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이슬, 투티에, 서울그린트러스트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브랜드 협업을 통해 정원가 설치미술 등 여러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daegillee.com

## Yeoji, A Little Room to Care Leedaegil Studio

The absence of *yeoji* means pushing things relentlessly in one direction, leaving no chance for anything beyond the plan to occur. But nature is full of *yeoji*—or perhaps *yeoji* created nature itself and still keeps it in motion. A trace of *yeoji* in the genes of a creature gives rise to new life and drives evolution. After the rain, a seed sprouts in the leftover water and takes root.

*Yeoji*(possibility) and *yeoyu*(leisure or composure) share the same root character, 余, meaning “to remain.” While they stem from the same root, they carry distinct yet related ideas. *Yeoji* is the space that allows the unplanned to happen—the leftover water that nurtures a seed, the slight variation that leads to a new species. *Yeoyu* is the ease and generosity of mind that embraces other lives. From this extra space in our minds, possibilities for life emerge. I will strip away a thin layer of the bleached, rigid surface of this traditional Korean house and place a basin of water there, to welcome them.

Lee Daegil is a gardener who creates and nurtures spaces where people and nature can form a harmonious relationship through art based on ecology. Since 2019, he has been operating Leedaegil Studio, undertaking various projects including gardens and installations through diverse on-site experiences and brand collaborations with Aesop, Tout Y Est, and Seoulgreentrust. For more information, daegillee.com.



- 1 <성소 연작 2-솟대>, 목봉, 스테인리스 스틸  
정원에 새가 찾아오는 건 아득히 먼 식물의 씨앗이 정원에 올 수도 있고, 정원의 생태계를 조절해 주기도 하는 좋은 일이다. 새를 반기는 마음으로 솟대를 세워본다, 온 김에 목도 축였으면 하고 수반도 걸어 올려본다.
- 2 <성소 연작 3>, 산석, 방수포  
빗물을 담아낼 수 있도록 알게 흙을 파내 땅의 그릇을 낸다. 수반에서 떨어지는 물은 더이상 처리되지 않고 누군가의 목을 축이고 스며들 것이다.
- 3 <언어로 만든 정원>, 종이, 음셋 인쇄, 215×290 mm, 8 set  
평소 정원가로서 들었던 생각, 사회, 고민, 관찰 내용 등을 글로써 기록한다. 정원이 자연의 흐름에 맞춰 적응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이대길의 생각이 담긴 이 글은 정원가로서의 변화 성숙, 확장의 과정을 보여준다.

- 1 **Sanctuary Series 2-Sotdae, Wooden batons, stainless steel**  
To welcome birds into a garden is a wonderful thing. It means that seeds from distant plants might find their way there, and the birds themselves can help regulate the garden's ecosystem. With a welcoming heart, I've erected a Sotdae (a traditional Korean totem pole for prayer) and hung a basin of water, hoping they'll quench their thirst while they visit.
- 2 **Sanctuary Series 3, Stone, pond liner**  
Digging shallowly into the earth, I create a bowl from the ground to collect rainwater. The water that drips from the basin will no longer be treated; instead, it will quench someone's thirst or be absorbed into the soil.
- 3 **A Garden Made of Language, Paper, offset printing, 215×290 mm, 8 set**  
This collection of writings chronicles the daily thoughts, reflections, and observations of gardener Lee Daegil. Just as a garden undergoes a process of adaptation and change in tune with the flow of nature, these texts reveal his own journey of growth, maturation, and expanding perspective as a gardener.



소쇄산방 瀟灑山房  
오픈니스 스튜디오, 우승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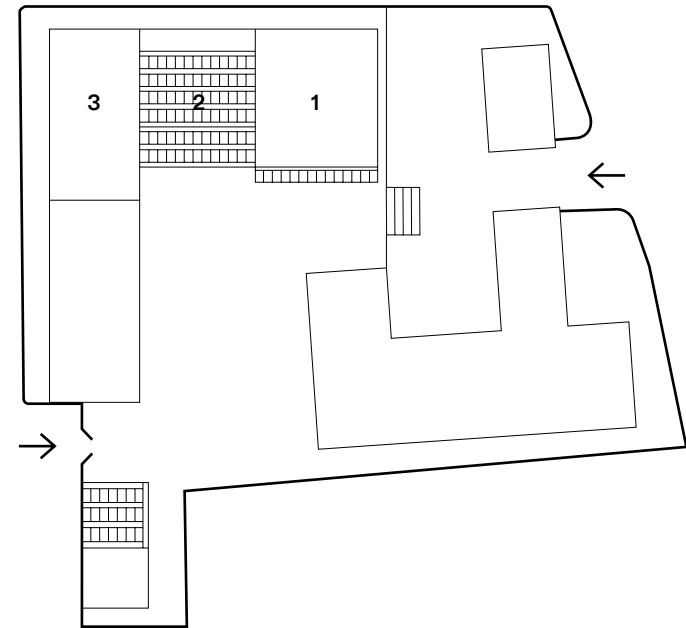
소쇄산방은 ‘맑고 시원하다’는 뜻을 지닌 전통정원 소쇄원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화’의 경험을 제안하는 전시이다. 500여 년 전 소쇄원의 경치를 담은 ‘48영시’에 영감을 받아, 한옥 안에 소쇄원의 감각적 체험을 녹여냈다. 대숲의 바람 소리를 듣고(聽), 눈을 감아 고요 속에 머물며(冥), 물의 맑은 성질과 빛의 울림을 느끼고(感), 시를 직접 감상하며(想) 이어지는 여정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다. 관람자는 이 체험 속에서 잠시나마 번잡한 마음을 씻고, 소쇄원의 본뜻처럼 맑고 시원한 울림을 온전히 느끼게 된다.

오픈니스 스튜디오는 “We design nature and everyday life”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는 조경디자인 스튜디오다. 자연 요소들을 섬세하게 다루어 그것이 갖는 심미적,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성을 투영한 현대적인 공간작업을 지향하며, 조경 뿐만 아니라 공공예술 및 전시 프로젝트에도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So Swae San Bang  
OPENNESS STUDIO, Woo Seungmin

So Swae San Bang is an exhibition that draws on the spirit of the traditional Korean garden Soswaewon—a place to “clear and refresh” oneself (So Swae). Inspired by *the Forty-Eight Poems of Soswaewon*, written over 500 years ago, the exhibition translates the garden’s sensory experiences into the setting of the Hanok. The journey—listening to the rustling of bamboo leaves (聽), resting in stillness with closed eyes (冥), sensing the clarity of water and the resonance of light (感), and engaging directly with poetry (想)—is not a series of scenes, but a process of purification. Visitors are invited to cleanse themselves of everyday burdens and fully experience the clear, refreshing spirit of Soswaewon.

Openness Studio is a landscape design studio with the motto “We design nature and everyday life.” By carefully working with natural elements, the studio reveals their aesthetic, ecological, and social value, offering richer daily experiences. Inspired by the unique spatial qualities of the Korean garden, its practice extends beyond landscape architecture into public art and exhibition projects.



- 1 <소쇄원의 반석>, 석재 단상, 왕마사, 물확, 패브릭  
바위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바람에 씻기는 순간을 노래한 소쇄원 제19영을 한옥 안 석재 단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관람자는 석재 단상에 앉아 명상하며 상념을 비워내고, 앞에 놓인 물확을 바라보며 물의 물성을 체감하며, 한옥 공간은 정화와 성찰의 장으로 확장된다.
- 2 <소쇄원의 계류>, 스테인리스 스틸, 자연석, 물, 패브릭  
이 작품은 계류가 통과하는 오곡문에서 영감을 받아, 속세로부터 벗어나 치유를 얻고자 둘러친 담장이 오히려 물길을 끌어들이는 역설적 순간을 담아낸다. 한옥 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온전히 느끼며 관람자는 물과 스스로를 비추는 담장 앞에서 물을 노래한 48영시를 읽으며 사유한다.
- 3 <소쇄원의 48영시>, 목재, 아크릴, 미디어(영상)  
소쇄원의 48영시를 담은 전시대 앞에서 직접 시를 읽고 사색한다. 함께 상영되는 소쇄원의 영상과 어우러져, 500여 년 전 쓰여진 시인의 경험에 공감하며 시공을 넘어선 정화의 경험을 체험한다.

- 1 **Rock of Soswaewon, Rock platform, gravel, water basin, fabric**  
*Rock of Soswaewon* reinterprets an old poem of that speaks of sitting upon a rock, gazing at the garden, and being cleansed by the wind. As the first piece of the exhibition, the poem is translated into a stone platform within the Hanok. Visitors are invited to sit on the platform, meditate, and empty their thoughts, while gazing into the water basin before them and sensing the qualities of water. This experience expands the Hanok space into a place of self reflection.
- 2 **Stream of Soswaewon, Stainless steel, natural rocks, water, fabric**  
Inspired by the Ogok Gate, where the stream passes through an opening in the wall, this work captures a paradoxical moment in which walls, built to enclose and retreat from the world, instead draw the water inward, offering healing. Bathed in light filtering into the Hanok, visitors stand before the wall that reflects both water and self, contemplating *the Forty-Eight Poems of Soswaewon* that sing of water.
- 3 **48 Poems of Soswaewon, Wood, acrylic, media**  
*The Forty-Eight Poems of Soswaewon* are displayed for visitors to read and hold in their hands. Across the display, video imagery of Soswaewon unfolds, connecting the poet’s experiences from over 500 years ago to a purifying journey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 균형과 절제 안마당더랩, 파시트

균형과 절제는 공간을 단순히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보임과 숨김의 경계에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미학이다. 전면을 가리지 않고도 질서를 세우고, 절제된 선과 면으로 조화를 이루는 균형은 ‘과하지 않음’ 속에서 오히려 풍요를 만들어낸다.

이번 전시는 균형과 절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시각적 장면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이는 전통이 지닌 미묘한 미학을 이어오면서도 오늘의 감각에 맞는 새로운 경계와 여백을 제안하는 시도이다. 관람자는 그 속에서 숨김과 드러냄이 교차하는 긴장을 마주하며, 절제된 균형이 지닌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된다.

안마당더랩은 이범수와 오현주가 2016년에 설립한 외부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다. 조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외부 공간을 구상하고 설계하여 완성해 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적인 공간, 상업공간, 공공을 위한 공간까지 다양한 외부 공간을 디자인하며, 각 프로젝트에 맞는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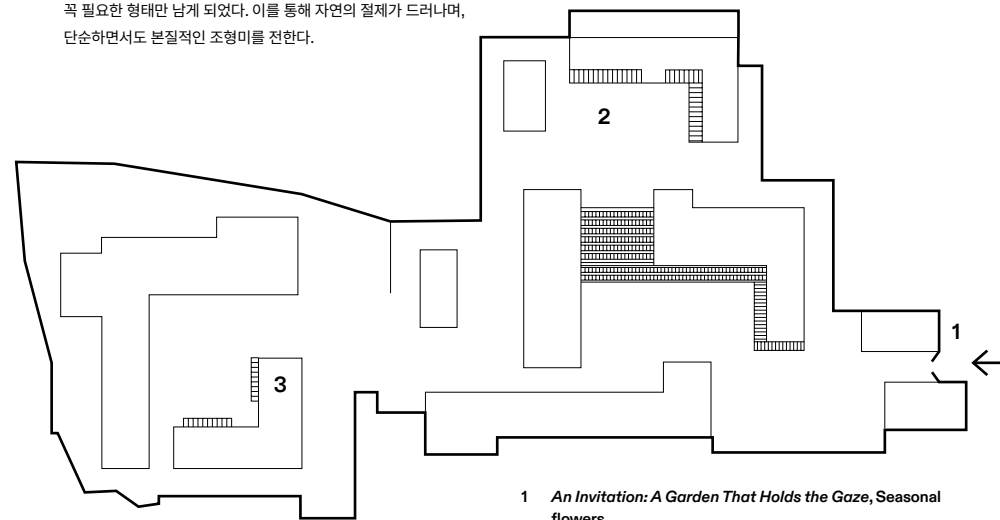
## Balance and Restraint Anmadang The Lab, FACET

*Balance and Restraint* are not merely ways of dividing space, but an aesthetic that reveals an attitude toward life in the boundary between what is seen and unseen. Without blocking the view, they establish order; through restrained lines and planes, they create harmony. In “not exceeding,” abundance quietly emerges.

This exhibition seeks to reinterpret balance and restraint in a contemporary language, unfolding them into visual scenes. It is an attempt to carry forward the subtle aesthetics of tradition while proposing new boundaries and margins that resonate with today’s sensibility. Within this space, the audience encounters the tension between concealment and revelation, and experiences the profound resonance that lies in restrained equilibrium.

Anmadang The Lab is an outdoor space design studio founded in 2016 by Beomsoo Lee and Hyunju Oh. Grounded in a deep knowledge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studio envisions, designs, and realizes diverse exterior spaces. From private residences to commercial venues and public grounds, Anmadang The Lab creates original and practical spaces tailored to each project.

- 1 <시선이 머무는 정원, 초대>, 초화  
초화가 식재된 진입부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머물게 하며,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한다. 정지된 이 순간은 공간의 시작에 균형을 부여하고, 이어지는 동선의 흐름을 차분히 열어준다.
- 2 <균형과 절제의 장치, 취병>, 철제, 대나무  
취병은 보임과 숨김 사이에서 균형을 세우며 절제된 선으로 질서를 만드는 장치이다. 이번 전시는 이를 현대적으로 풀어내어 균형과 절제의 미학을 제안한다.
- 3 <절제의 구조>  
주상절리는 용암이 냉각·수축하면서 형성된 돌기둥으로, 수직적 안정감과 반복적인 균형미를 보여준다. 이 지형에는 인위적인 장식이나 과장이 전혀 없으며, 자연이 만든 최소한의 선과 면만이 남아 있다.  
오랜 시간의 압축과 냉각 과정을 거치며 불필요한 것은 사라지고, 꼭 필요한 형태만 남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연의 절제가 드러나며,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조형미를 전한다.



### 1 An Invitation: A Garden That Holds the Gaze, Seasonal flowers

The entrance, planted with flowering perennials, naturally holds the gaze and gently pauses the step. This moment of stillness grants balance to the beginning of the space and calmly opens the flow of the path that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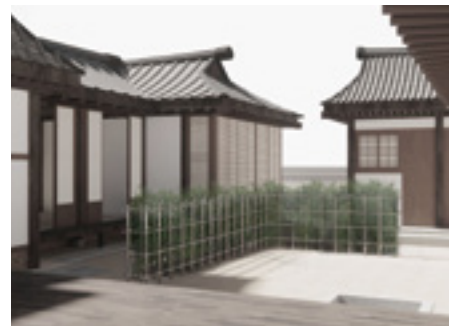
### 2 Chwibyeong: A Device of Balance and Restraint, Steel, bamboo

A folding screen is a device that establishes balance between concealment and revelation, creating order through restrained lines. This exhibition reinterprets it in a contemporary language, proposing an aesthetics of balance and restraint.

### 3 The Structure of Restraint

Columnar joints are stone pillars formed as lava cools and contracts, revealing a vertical sense of stability and a repetitive balance. In this terrain, there is no artificial ornament or exaggeration—only the essential lines and planes shaped by nature remain.

Through long processes of compression and cooling, the unnecessary has disappeared, leaving only what is essential. In this, nature’s restraint is revealed, conveying a simplicity that embodies fundamental beauty of form.







## 미기후의 자리 천변만화

비움과 머뭇으로 깃든 자리, 그 속에서 미기후의 조각들을 발견한다.

정원은 작지만 살아 있는 세계다. 그곳에는 빛과 바람, 물과 흙이 만들어낸 고유한 기후가 있다. 조경가 이양희는 다양한 장소에서 관찰한 ‘미기후의 흔적’을 수집해 이 전시를 구성했다. 땅의 건조함, 습기, 돌의 열기, 한옥 구조가 만드는 공기의 흐름까지.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땅의 말투와 식물의 생존 전략이 전시 속 풍경으로 깃든다. 이곳에서 잠시 머물고, 깃드는 감각을 따라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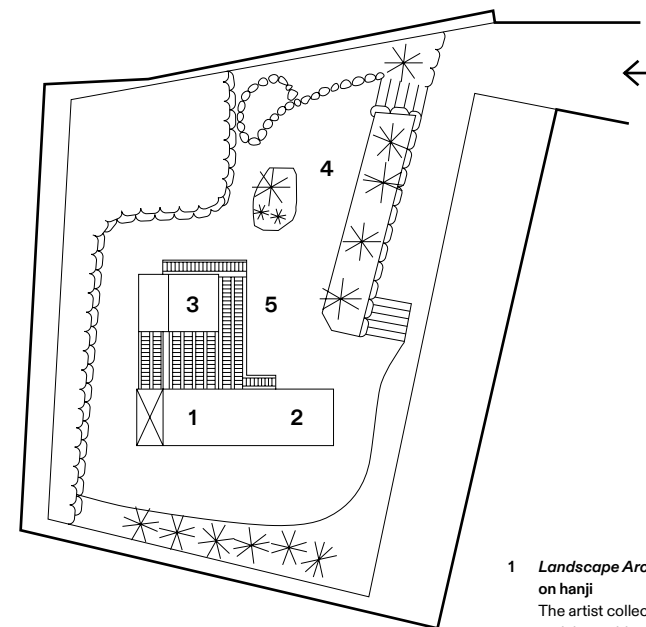
천변만화 대표 이양희는 자연과 지구 위의 수많은 생존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눌 때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말이 아닌 몸짓으로 이야기하는 생물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기록하며, 그들로부터 무수한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여긴다.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한 걸음씩 실천해나가며 문제에 답을 찾고 작업을 이어가는 조경가이자 정원 작가다.

## Where Climate Rests Studio Cheonbyeonmanhwa

In spaces shaped by emptiness and dwelling, we discover fragments of microclimate.

A garden is a small but living world, with a unique climate shaped by light, wind, water, and soil. Landscape artist Lee Yang-hee has curated this exhibition by collecting the traces of microclimate she has observed in various locations. From the dryness and dampness of soil to the heat held in stones and the movement of air shaped by the architecture of Hanok—these subtle forces are often overlooked. Yet they whisper the language of land, revealing how plants adapt and survive. This exhibition presents these invisible climates as quiet landscapes. Take a moment to pause here, let the space linger in you, and follow the sense of dwelling that unfolds.

Lee Yang-hee, founder of Studio Cheonbyeonmanhwa, believes that many of the world's problems can be solved when nature and countless survivors on Earth come together to share wisdom. She believes that by carefully observing and documenting creatures who communicate through gestures rather than words, we can learn countless languages from them. She is a landscape architect and garden designer who seeks to find answers to problems and continue her work by taking one step at a time in doing what the world needs.



### 1 <조경가의 기록>, 채취한 흙, 한지 위 실크프린팅

작가는 흙을 직접 채취하고, 그 촉감과 냄새, 식물의 상관(相觀)을 기록한다. 그곳에 서 있었던 시간과 감각, 그리고 사적인 생각들은 글씨로 남겨져, 한 사람의 조경가가 땅을 이해해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 2 <서울의 산, 건암(乾岩)>, 채취한 흙, 한지 위 실크프린팅

한옥 창 너머로 보이는 인왕산과 북악산의 화강암은, 도시 위에 솟은 거대한 대지의 얼굴이다. 건조해 보이는 돌산에도 물은 흐르고 생명은 자란다. 이곳은 척박함 속에서도 기후를 품고 있는 건암 미기후의 상징이다.

### 3 <물기머금은 땅, 습토(濕土)>, 채취한 흙, 한지 위 실크프린팅

화계 아래 병풍처럼 드리운 녹색 풍경, 그 밑바닥에서 이끼가 흐른다. 축축한 공기와 누기진 흙은 물을 머금은 대지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이는 오미진 지형과 같은 물성의 은유로 존재한다.

### 4 <한옥의 미기후>, 기왓장 위 아크릴

한옥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일상적인 구조가 아니다. 그러나 뒷마루와 누마루, 대청마루는 바람과 그늘을 만들고, 기왓장 틈 사이에서 돌아난 식물들은 이 고유한 건축이 만든 미기후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류와 온도의 흐름이, 작은 식물들을 통해 드러난다.

### 5 <미기후 탐사자>, 채취한 흙

전시장 외부 공간에 펼쳐진 흙은,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하늘에서 날아든 씨앗들은 각자의 생존 조건에 맞는 미기후를 기다리며, 이 흙 위에서 움틀 준비를 한다. 전시 이후에도 이 흙은 관찰을 이어가 살아 있는 기후의 자리로 남는다.

### 1 Landscape Architect's Record, Soil samples, silk printing on hanji

The artist collects soil by hand, recording its texture, scent, and the visible characteristics of the plants growing in relation to it—what plant sociologists call physiognomy. Her field notes and handwritten reflections trace a landscape architect's personal journey to understand the ground beneath her feet.

### 2 Seoul's Mountains, Dry Rock (Geonam), Soil samples, silk printing on hanji

The granite faces of Inwangsan and Bugaksan, seen through the hanok window, embody the geological identity of the Korean peninsula. Even on these seemingly barren stone mountains, water flows and life persists—a symbol of microclimate thriving in harsh conditions.

### 3 Water-Holding Ground (Seupto), Soil samples, silk printing on hanji

Moss flows beneath the curtain-like landscape of a terraced garden, known as *hawgye*. Damp air and water-laden soil carry the presence of a humid microclimate, where moisture gathers and lingers. This piece metaphorically evokes the terrain of Omijin—a natural basin, like a hidden hollow in the land, shaped to receive and hold water.

### 4 Microclimate of Hanok, Acrylic on reclaimed hanok roof tile

The hanok is no longer a familiar structure to most, yet its layout creates unique flows of air and shade. The *daecheongmaru* (main floor), *toetmaru* (veranda), and *numaru* (loft) shape subtle changes in light and humidity. Small plants sprouting between roof tiles reveal the silent microclimate of this architecture.

### 5 Microclimate Explorer, Raw soil

The exposed soil outside the exhibition space patiently awaits unseen guests. Wind-dispersed seeds land and wait, each seeking a microclimate fit for germination. Even after the exhibition ends, this patch of soil will remain alive—an evolving site of climate and potential.



### Gwan-jo(contemplation) Lowhand

I define the terrarium a new as “placing nature within the frame of glass to create an unfamiliar scene.” This is to guide our way of relating to plants through *gwanjo*—a contemplative gaze. *Gwanjo*, composed of the Chinese characters for “to see” and “to reflect,” means to observe or mirror things and phenomena with a quiet mind. It is an experience that goes beyond looking, toward recognizing, accepting, and understanding the subject as it is. In contemplating plants, I hope one may arrive at the understanding that it is equally possible to contemplate, and to cherish, one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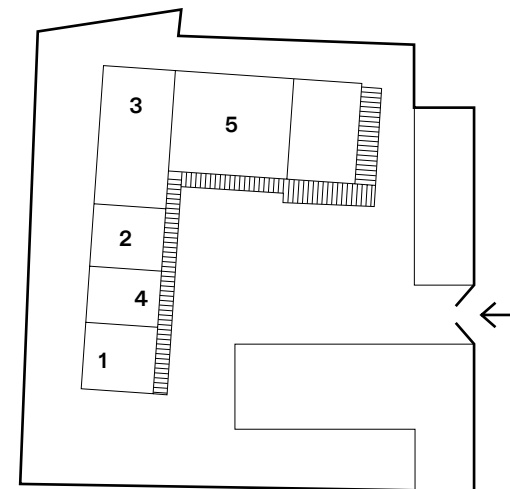
Lowhand creates small worlds within glass vessels to bring nature closer to everyday life. Moss, soil, and the act of making evoke memories of childhood, forming a miniature garden of rest and contemplation on the desk. These works are conceived and produced to share that quiet experience of comfort and reflection with others.

### 관조 觀照

#### 로우핸드 테라리움

테라리움을 ‘자연을 유리병이라는 프레임에 넣어 생경한 장면을 만든다.’ 라고 새롭게 정의 해 본다. 식물과 관계맺는 방법을 관조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관조란 볼 관, 비칠 조의 한자어로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을 뜻한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대상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해하게 되는 경험이다. 식물을 관조하며, 충분히 사랑할 만한 스스로의 모습을 관조하는 이해의 결말에 다다르기를 바란다.

로우핸드 테라리움은 자연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헤아려 주고 싶어 유리병 속 작은 세계를 만들고 있다. 이끼의 촉감과 흙내음, 만드는 즐거움이 유년시절의 기억까지 꺼내와 책상 위에 위로와 심의 작은 정원을 만든다. 이러한 경험들을 공유하는 작품들을 기획, 제작하고 있다.



- 1 <테라리움>, 유리화기, 식물, 600×500×500(h) mm  
유리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하게 연출하였다. 흐릿한 경계는 자연이 더 이상 ‘갇힌 풍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로소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여러가지 이끼들의 섬세한 표현과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은 작은 잎 하나하나에 빛을 머금은 듯 반짝이며, 마치 숲 속의 공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 2 <분경 畵景>, 유리사각화기, 청룡석, 이끼, 흙, 자갈, 400×1600×450(h) mm  
북촌은 한옥과 골목, 그리고 그 뒤편에 이어진 산세가 어우러져 특별한 아름다움의 경험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유리 사각의 화기 속 화색빛의 청룡석과 이끼의 조합으로 마치 이 집의 주인인 배려의 산수화가 펼쳐진 듯한 풍경이 완성된다.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실제 산맥을 형용하여 이 특별한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머물도록 유도한다.
- 3 <시간의 자국>, 고목, 건조된 이끼와 식물, 900×300×400(h) mm, 300×300×900(h) mm  
우리가 작업하는 식물과 돌 등 여러가지 소재들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자연의 결과물이다. ‘시간’을 극대화 하기 위해 아까시나무 고목을 사용하였고, 고목의 표면에 새겨진 균열과 무늬는 지나온 세월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다.
- 4 <작가의 창>, 노트, 1600×1400 mm  
스케치, 작업노트, 수집된 재료들. 이 자료들은 완성된 작품만으로는 알 수 없는, 창작의 여정과 고민을 보여준다. 단순히 작품을 보는 것을 넘어 작가의 눈에 비친 작품을 다시 바라보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연다.
- 5 <식물도감>, 아크릴박스, 식물, 400×400×900(h) mm, 6 ea  
아크릴박스 안에는 우리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독립적으로 놓여 있다. 우리와 같은 시간에 살아가는 식물들이지만 존재의 유무도 알지 못했던 식물들을 바라봄으로써, 식물이 가지는 고유성을 직면하고 식물과 독대할 때 받게 되는 생경한 느낌을 느끼게 된다.

- 1 **Terrarium**, Glass vessel, various mosses, 600×500×500(h) mm  
The boundary between inside and outside the glass is rendered ambiguous. This blurred threshold reveals that nature is no longer a “contained scene,” but has truly arrived before us. The delicate forms of moss and the graceful presence of wood shimmer as if each tiny leaf holds the light, evoking the sensation of having brought the very air of the forest into the vessel.
- 2 **Penjing (miniature landscape in a vessel)**, Square glass, stone, moss, 400×1600×450(h) mm  
Bukchon offers a unique experience of beauty, where Hanok — Korean traditional houses, narrow alleys, and the mountain ridges beyond converge in harmony. Within the square glass vessel, the combination of gray-blue Cheongryong stone and moss unfolds like a landscape painting by Bae Ryeom, the former master of this house. Rather than abstraction, it evokes the true form of the mountains, inviting viewers to fully embrace and linger in this singular experience.
- 3 **Imprint of Time**, Acacia tree trunk, dried plants, 900×300×400(h) mm, 300×300×900(h) mm  
The plants, stones, and other materials we work with are not made by human hands, but are natural outcomes formed over long spans of time. To heighten the sense of “time,” an acacia tree trunk has been used; the cracks and patterns etched on its surface bear the traces of years that have passed.
- 4 **Artist's Window**, Sketches, working notes, 1600×1400 mm  
Sketches, working notes, collected materials—these reveal the journey and questions of creation that cannot be seen in the finished work alone. They invite the viewer not only to look at the piece, but to see it again through the artist's eyes, opening the possibility of new interpretations.
- 5 **Plants**, Acrylic boxes, plants, 400×400×900(h) mm, 6 ea  
Inside the acrylic boxes, plants from our surroundings are placed individually. Though they live within the same time as we do, they are plants whose very presence often goes unnoticed. By looking at them, one comes face to face with their uniqueness, and in solitary encounter with a plant, experiences the unfamiliar sensation it brings.





## 공존 共存 마초의 사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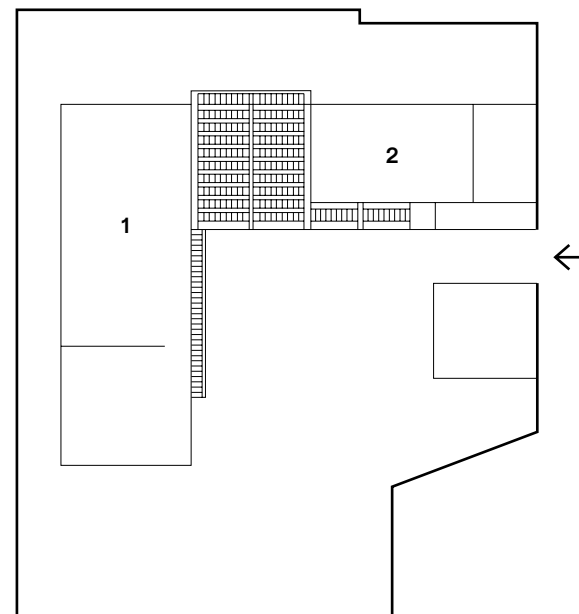
우리는 자연에 이야기를 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자연을 더 가까이 느끼도록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있을 법한 고전 설화를 지어내어 이 공간을 관객과 이어주려 한다. 마을은 하나의 정원이 되고, 주민은 관객이 된다. 익숙한 정원은 낯선 흔적을 품어 새로운 얼굴을 드러내며, 마초의사춘기는 그 흔적을 설계하고 연결하는 손이 된다. 그 흔적은 상상이 되고, 상상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어 이 공간을 채운다.

마초의사춘기는 자연을 장식이 아닌 효과로 바라보며, 인간 중심의 회복 설계를 제안하는 데이터 기반 공간 솔루션 그룹이다. 조경-플랜테리어 등 자연 요소를 '바이오필리아 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콘텐츠로 담아내 공간 기획에 통합한다.

## Coexistence MACHO's SACHUNKI

We plant stories in nature, allowing people to feel closer to it through those narratives. In this exhibition, we weave an imagined folktale to connect the space with its visitors. The village becomes a garden, and the villagers become its audience. A familiar garden carries unfamiliar traces and reveals a new face, while Macho's Adolescence becomes the hand that designs and connects those traces. These traces turn into imagination, and imagination unfolds into new stories that fill the space.

MACHO's SACHUNKI is a data-driven spatial solution group that views nature not as decoration, but as a source of impact, proposing human-centered restorative design. Its approach involves defining natural elements like landscaping and plant interiors as a part of the 'Biophilia Industry' and incorporating them into spatial planning as valuable content.



- 1 **〈흔적 痕跡〉, 생화, 조화, 페프릭, 플라스틱, 스펀지**  
정체 모를 형상이 남긴 흔적을 담은 작품이다. 관객은 그 흔적을 마주하며 형상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 2 **〈형상 形象〉, 조화, 페프릭, 플라스틱, 스펀지**  
관객은 이 공간에서 형상을 찾기 위한 활동을 하며 상상력을 확장시킨다. 그렇게 결말 없는 이야기는 관객 스스로의 해석으로 완성되어 간다.

- 1 **Trace, Plants, artificial plants, fabric, plastic, sponge**  
This work presents traces left by an unidentified figure, inviting viewers to question its identity and embark on their own journey of interpretation.
- 2 **Figure, Artificial plants, fabric, plastic, sponge**  
In this space, the audience engages in the search for the figure, expanding their imagination. The open-ended narrative is ultimately completed through their own interpretation.



## 정원가는 작업 중 월하랑, 파시트

정원가는 땅을 보며 작업한다. 땅은 토양 뿐 아니라 주변 환경 및 해당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경관까지를 의미한다. 전시를 기획하며 작가들의 작업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땅의 장소성에 맞춰 주제를 결정하고 전시 내용까지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며 결과물 만큼이나 작업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했다.

《정원가는 작업 중》사진전은 땅의 원래 모습과 작가의 해석을 통해 구현된 결과물 뿐 아니라 중간 과정을 담았다. 실제 공간을 감상하면서 이면에 담긴 작가의 고민이 느껴지길 바란다.

파시트 스튜디오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정교한 조형적 감각과 균형 잡힌 시각 언어를 통해 결과물을 제안한다. 상업적 요구와 예술적 탐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Gardeners at Work* Wolharang, FACET

*Gardeners work with the land.* The land refers not only to soil but also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landscape of a place. While preparing this exhibition, I observed the artists' working processes. They shaped their themes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the site and adjusted the exhibition content with flexibility, which showed me that the process is just as important as the result.

The photo exhibition *Gardeners at Work* presents the original state of the land, the artists' interpretations, and the steps in between. We hope that as you view the works, you will also sense the thoughts and concerns behind them.

FACET Studio is committed to understanding the unique context and objectives of each project, delivering results through refined aesthetic judgment and a balanced visual approach. Our aim is to create images that effectively meet commercial requirements while embodying artistic value.

2025 서울한옥위크  
정원의 언어들

주최:  
서울특별시

Seoul Hanok Week 2025  
*Garden Languages*

Organized by  
Seoul

관람기간:  
2025.9.26.-10.5.  
10시-17시  
월요일 휴관

전시총괄:  
월하랑  
  
운영:  
웨이드

Opening Hours:  
2025.9.26.-10.5.  
10:00-17:00  
Closed on Mondays

Director  
Wolharang

Operated by  
Wayd

관람료:  
무료

참여작가:  
이대길 스튜디오  
이대길  
오픈니스 스튜디오  
최재혁  
신수란  
이관용  
이우정  
정대일  
우승민(사진)

Admissions:  
Free

Venues:  
House of Hong Geon-ik  
Sangchonjae Hanok House  
Bukchon Cultural Center  
Bukchon Community Library  
Baeryeom's House  
Bukchon Hanok Hall  
Bukchon Lounge

Artists:  
Leedaegil Studio  
Lee Daegil  
OPENNESS STUDIO  
Choi Jaehyeog  
Shin Sooran  
Lee Kwanyong  
Lee Woojeong  
Jeong Daeil  
Woo Seungmin (Photographer)  
Anmadang The Lab  
Lee Bumsoo  
Oh Hyunju  
Park Sungwook (Photographer)  
Studio Cheonbyeonmanhwa  
Lee Yang-hee  
Lowhand  
Kim Hyunji  
MACHO's SACHUNKI  
Park Jihyeon  
Han Dawon  
Park Juwon  
Ji Daesung  
FACET  
Park Sungwook  
Wolharang  
Shin Jiseon

안마당더랩  
이범수  
오현주  
박성욱(사진)  
천변만화  
이양희  
로우랜드 테라리움  
김현지  
마초의사춘기  
박지현  
한다원  
박주원  
지대성  
파시트  
박성욱  
월하랑  
신지선

Leedaegil Studio

OPENNESS STUDIO

anmadang the lab

안마당

lowhand

MACHO'S SACHUNKI

FACET

SEOUL  
MY SOUL

서울한옥

월하랑  
한국정통문화연구소